

기후분석정보



9월 우리나라 기후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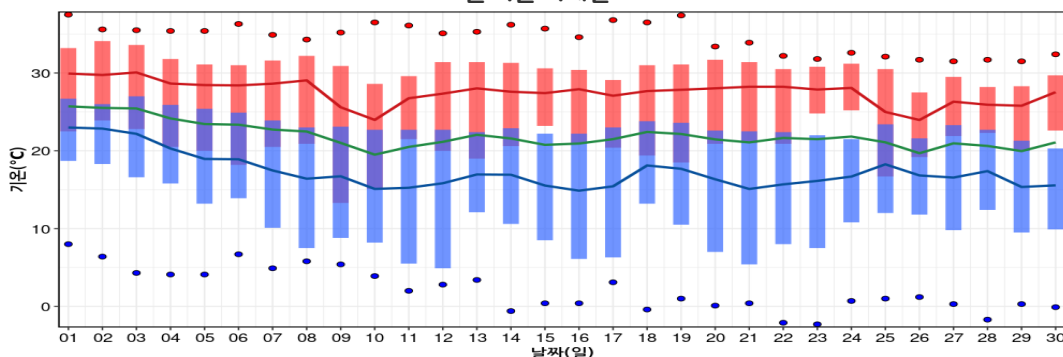
요약

9월 평균기온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 역대 두 번째로 적어

- 평균기온 21.7°C(역대 6위)로 2020년대 들어 6년 연속 평년보다 높았음, 열대 서태평양 대류 억제와 북쪽 찬 공기 유입 영향으로 북태평양 고기압 빠르게 약화되며 역대 가장 더웠던 2023~2025년보다는 낮았음
- 강수량 26.4mm로 평년 대비 17.0%로 하위 2위, 2015년 이후 평년보다 이례적으로 적었음

기온

9월 기온 시계열



▶ 최고기온
▶ 평균기온
▶ 최저기온

▶ 막대: 전국 기온 범위
▶ 실선: 전국 평균
▶ 점: 1973년 이래 극값

※전국 62개 지점과 제주 4개 지점을 포함한 66개 관측자료 활용, (1973~1989년)전국 56개+제주 2개, (1990~2025년)전국 62개+제주 4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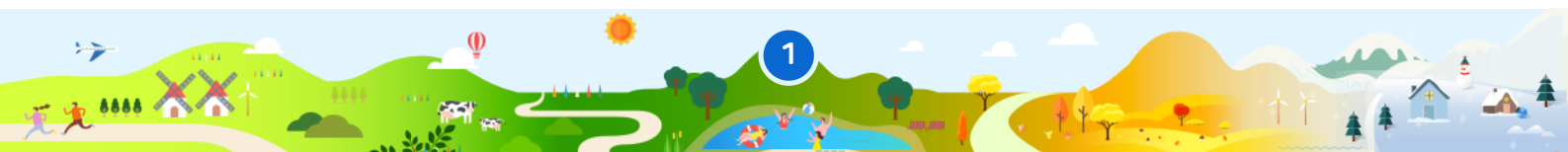
- 9월 전국 평균기온은 21.7°C(역대 6위)로 평년(20.5°C)보다 1.2°C 높아, 2020년대 들어 6년 연속 9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게 나타났 습니다. 5~17일에는 찬 공기가 유입되며 대체로 평년 수준의 기온이 이어졌으나, 9월 초(1~4일)와 하순(18~30일)에는 기온이 평 년 대비 높았습니다. 9월 초에만 일부 남부지방과 제주 지역에서 폭염과 열대야가 발생하였고, 9월 전국 폭염일수는 0.1일, 열대야일 수는 0.2일로 평년(폭염: 0.2일, 열대야: 0.1일) 수준이었습니다.

기온 관련 기상요소별 순위 (1973년 이후 전국평균)

구분	2026년 9월			
	평균값 (°C)	평년값 (°C)	평년편차 (°C)	순위(상위)
평균기온	21.7	20.5	+1.2	6위
평균 최고기온	27.3	25.9	+1.4	3위
평균 최저기온	17.0	16.1	+0.9	15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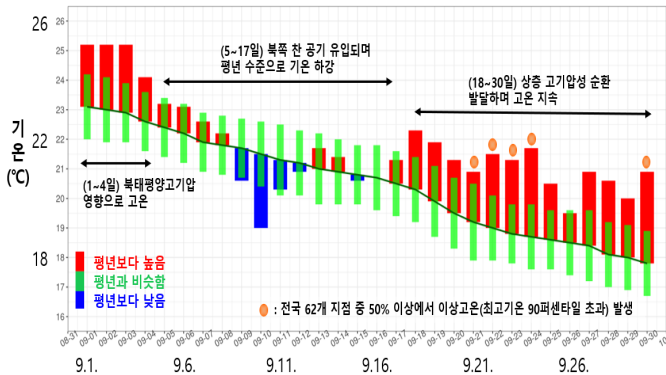
※ 전국평균: 1973년 이후부터 연속적으로 관측한 전국 62개 지점의 관측자료를 활용((1973~1989년) 56개 지점, (1990~2026년) 62개 지점)

※ 평년값: 1991~2020년 적용



기온

9월 일별 전국 평균기온 시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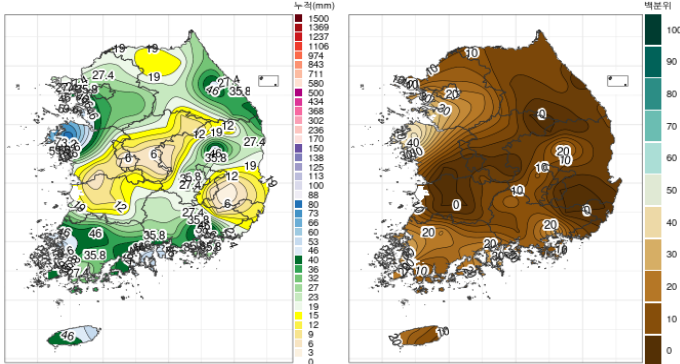


현황 및 특성

- (9월 초와 하순 고온) 8월 하순에 우리나라로 확장한 북태평양고기압이 9월 4일경까지 영향을 주면서 기온이 평년 대비 높았고, 이 시기에 일부 남부지방과 제주 지역에서 폭염과 열대야가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18~30일에는 상층에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되어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지속되었습니다.
- (5~17일 평년 수준으로 하강) 5일경부터 중국 북동지방에서 고기압이 점차 확장하며 상대적으로 찬 공기가 유입되어 평년 수준의 기온으로 하강하였습니다. 특히, 9~12일에는 북대서양에서부터 기인한 중위도 유라시아 대기 파동 강화와 함께, 우랄과 베링해 부근에 기압능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우리나라 북쪽에서 상층 찬 기압골이 발달하여 기온이 더욱 하강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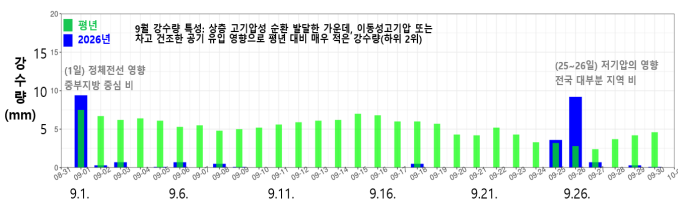
강수량

2026년 9월 전국 강수량(mm)과 퍼센타일(%ile)



※ 전국 62개 지점과 제주 4개 지점을 포함한 66개 지점의 관측자료를 활용

2026년 9월 전국 강수량 시계열(mm)



※ 전국 62개 지점의 관측자료를 활용

현황

- 9월 전국 강수량은 26.4mm로 평년(155.1mm) 대비 17.0% 수준으로 역대 두 번째로 적었고, 작년(228.8mm)의 1/9 수준이었습니다. 지난 10년(2016~2025년) 동안 9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았으나, 올해 9월 강수량은 이례적으로 매우 적었습니다. 강수일수는 4.4일로 평년(9.3일)보다 4.9일 적었습니다(하위 3위).

원인

- 1일에는 정체전선, 25~26일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긴 하였지만 강수량은 많지 않았습니다. 9월 동안 상층에 고기압성 순환이 주로 발달한 가운데,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거나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며 강수량이 매우 적었습니다. 9월 전국 상대습도도 73%로 평년 대비 낮았습니다(하위 5위).

강수량 관련 기상요소별 순위 (1973년 이후 전국평균)

구분	2026년 9월		
	값	퍼센타일(강수량)/평년편차(강수일수)	순위(하위)
강수량	26.4mm	0%ile	2위
강수일수	4.4일	-4.9일	3위

※ 전국평균: 1973년 이후부터 연속적으로 관측한 전국 62개 지점의 관측자료를 활용((1973~1989년) 56개 지점, (1990~2026년) 62개 지점)

※ 평년값: 1991~2020년 적용



이상고온·저온 및 기상가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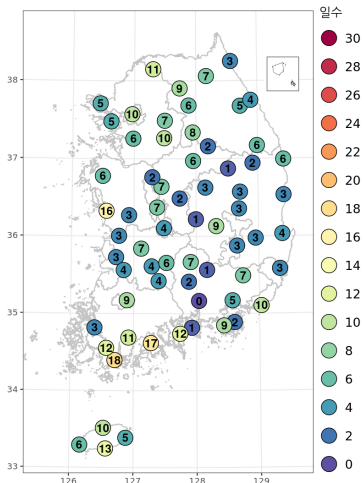
이상고온·저온 발생일수

▶ **이상고온(저온) 발생일수:** 이상고온(저온)은 평년(1991~2020년)에 비해 기온이 현저히 높은 극한현상으로 일최저·최고기온이 90퍼센타일 초과(10퍼센타일 미만)에 해당하는 일수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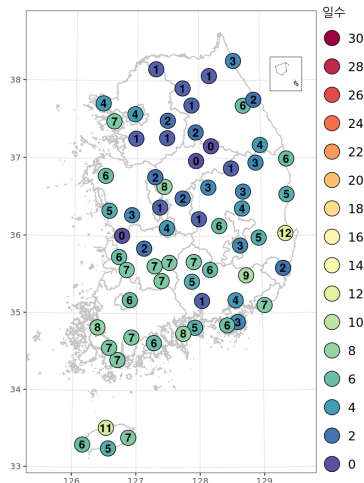
※ 퍼센타일: 평년(1991~2020년) 같은 기간에 발생한 기온을 비교하여 작은 순서대로 몇 번째인지 나타내는 백분위수



최고기온 기준 이상고온 발생일수(일)



최저기온 기준 이상고온 발생일수(일)



• **최고기온 기준 이상고온 발생 일수: 5.8일(작년 8.2일)**

• 주요지점 발생일수: 완도 18일, 고흥 17일, 보령 16일, 서귀포 13일, 여수 12일, 해나 12일, 철원 11일, 장흥 11일, 서울 10일

• **최저기온 기준 이상고온 발생 일수: 4.2일(작년 13.7일)**

• 주요지점 발생일수: 포항 12일, 제주 11일, 밀양 9일, 청주 8일, 목포 9일, 여수 8일, 인천 7일, 부산 7일, 완도 7일, 성산 7일, 임실 7일

* 평균방법: 각 지점별 이상기온 발생 일수 산출 후 62개 지점 평균

기상가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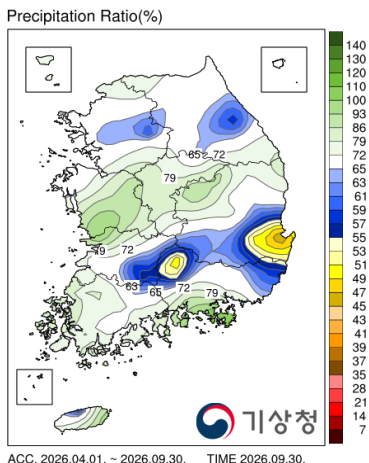
▶ **기상가뭄:** 최근 6개월('26.4.1.~'26.9.30.) 누적강수량이 평년 강수량보다 적은 현상

▶ **기상가뭄 판단 기준:** 최근 6개월 강수량(표준강수지수*)에 따라 약한-보통-심한-극심한 가뭄인 4단계로 구분

*표준강수지수(기상청): 최근 누적강수량과 과거(1973년~전년) 동일기간의 강수량을 비교하여 가뭄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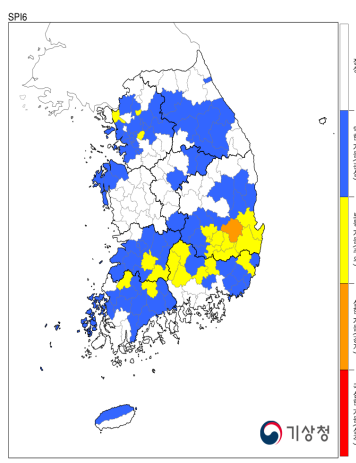
*습함(1.0 이상), 정상(0.99~0.99), 약한 가뭄(-1.00~-1.49), 보통 가뭄(-1.50~-1.99), 심한 가뭄(-2.0 이하), 극심한 가뭄(-2.0 이하 20일 이상)

강수평년비(%)



ACC. 2026.04.01. ~ 2026.09.30. TIME 2026.09.30.

가뭄 현황



TIME 2026.09.30.

• **6개월('26.4.1.~'26.9.30.) 전국 누적강수량: 784.7mm로 평년(1074.2mm) 대비 72.7%입니다.**

※ 전국 평년비: 제주(4개 지점)를 제외한 62개 지점의 평년비를 평균한 값

• **가뭄 현황(9.30. 기준):** 수도권, 강원, 전라, 경상 지역을 중심으로 96개 시·군에 기상가뭄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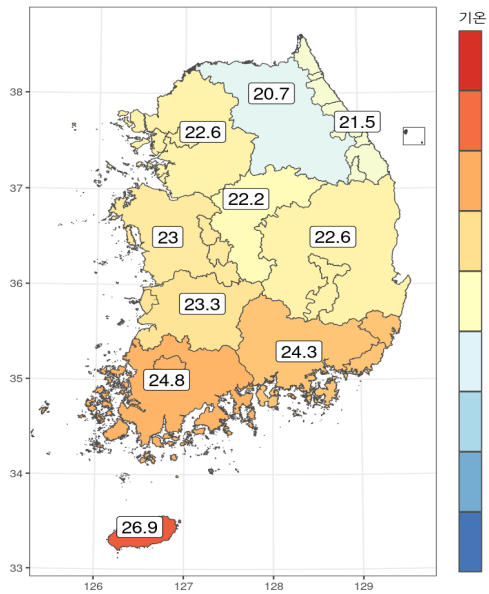


주요 기후요소 비교 - 기온·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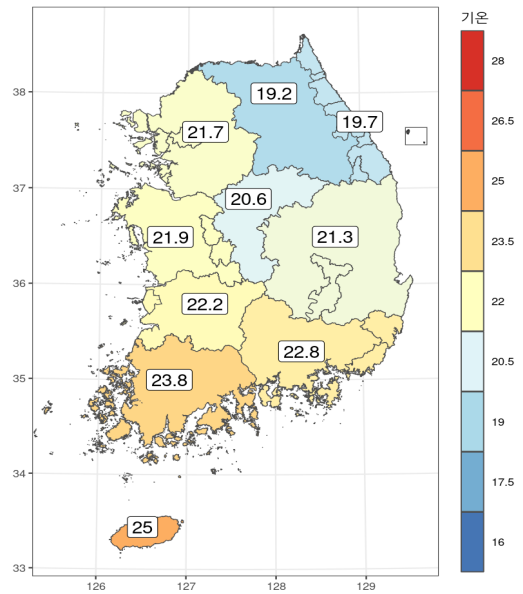
작년 비교

- 9월 전국 평균기온은 작년보다 1.3℃ 낮았고, 강수량은 작년의 1/9 수준으로 적었습니다.
- [기온] 올해(21.7℃) vs 작년(23.0℃)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온이 작년보다 낮았으며, -1.9~-0.9℃ 분포를 보였습니다.
- [강수] 올해(26.4mm) vs 작년(228.8mm)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강수량이 작년보다 적었으며, 작년 대비 -355.1~-66.2mm 분포를 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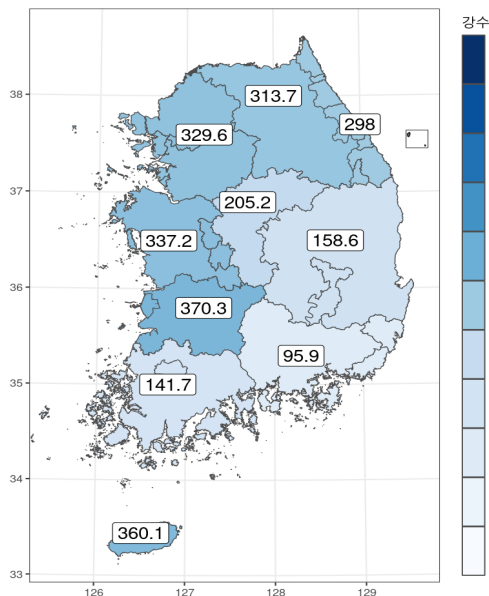
2025년 9월 평균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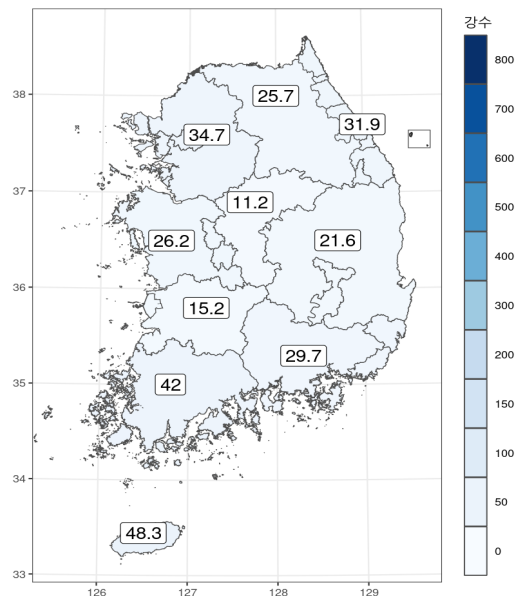
2026년 9월 평균기온(℃)



2025년 9월 강수량(mm)



2026년 9월 강수량(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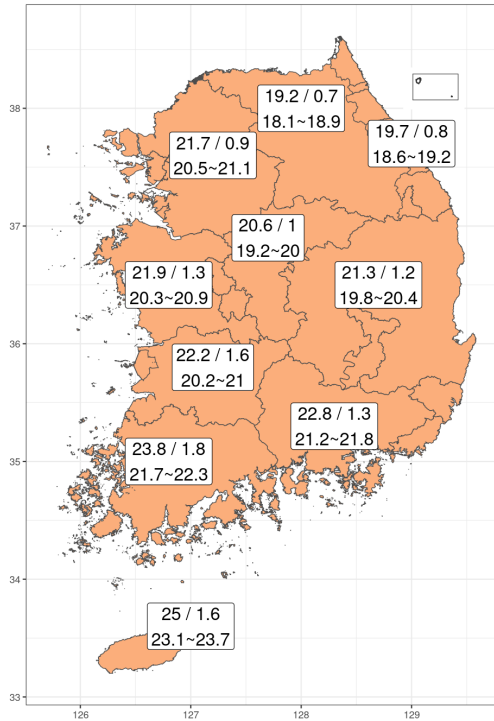


※ 전국 66개 지점의 관측자료를 활용(제주 평균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4개 지점의 관측자료를 활용)

평년 비교

- 9월 평균기온은 평년(20.5℃)보다 1.2℃ 높았고, 강수량은 평년(155.1mm) 대비 17.0% 수준으로 평년보다 적었습니다.
- [기온] 전국 평균기온은 21.7℃로 평년(20.2~20.8℃)보다 높았으며, 전국적으로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습니다.
- [강수량] 전국 강수량은 26.4mm로 평년(84.2~202.3mm)보다 적었으며, 전국적으로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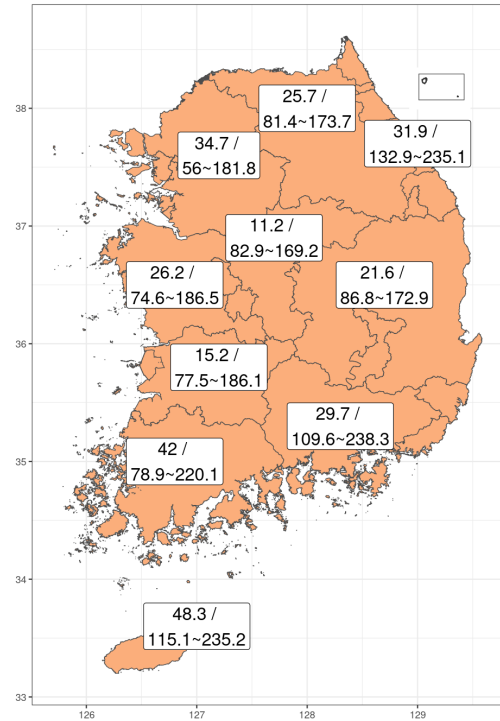
평균기온(℃)



낮음 비슷 높음

※ 네모 박스 위: 월 평균값(℃)/편차(℃),
아래: 평년(1991~2020년) 비슷범위(℃)

강수량(mm)



적음 비슷 많음

※ 네모 박스 위: 월 누적값(mm),
아래: 평년(1991~2020년) 비슷범위(mm)

※ 평년비슷범위: 과거 30년(1991~2020년)간 연도별 30개의
평균값 중 대략적으로 33.33%~66.67%에 해당하는 값

상한
하한
평균기온의 평년값
강수량의 중앙값

우리나라 월별 평균기온 평년편차와 순위 (2025년 10월 ~ 2026년 9월)

년/월	2025년			2026년									기준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월평균(℃)	16.6	8.5	2.4	-1.6	2.7	7.4	13.8	18.6	22.2	26.8	27.1	21.7	
평년편차(℃)	+2.3	+0.9	+1.3	-0.7	+1.5	+1.3	+1.7	+1.3	+0.8	+2.2	+2.0	+1.2	평년(1991 ~ 2020년)
순위(상위)	1	11	10	37	9	9	3	1	7	3	2	6	1973 ~ 202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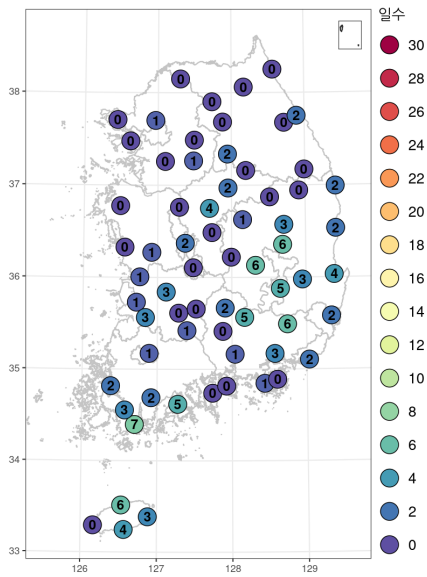
※ 전국평균 및 순위: 1973년 이후 연속적으로 관측한 전국 62개 지점의 관측자료를 활용((1973~1989년) 56개 지점, (1990~2026년) 62개 지점)

주요 기후요소 비교- 폭염·강수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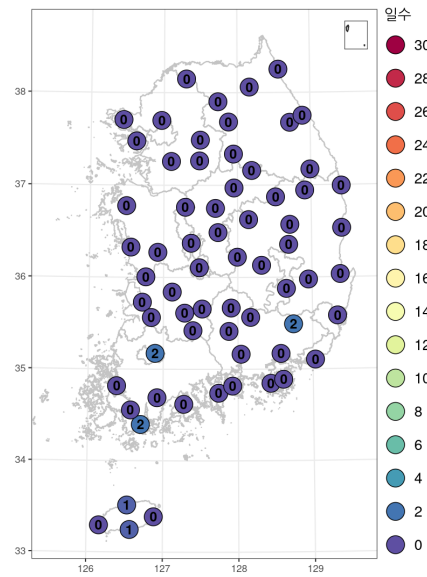
작년 비교

- [폭염일수] 올해(0.1일) vs 작년(1.6일)
전국 대부분 지역(광주 제외)에서 폭염일수가 작년보다 적었습니다(평년 0.2일).
- [강수일수] 올해(4.4일) vs 작년(15.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강수일수가 작년보다 적었습니다(평년 9.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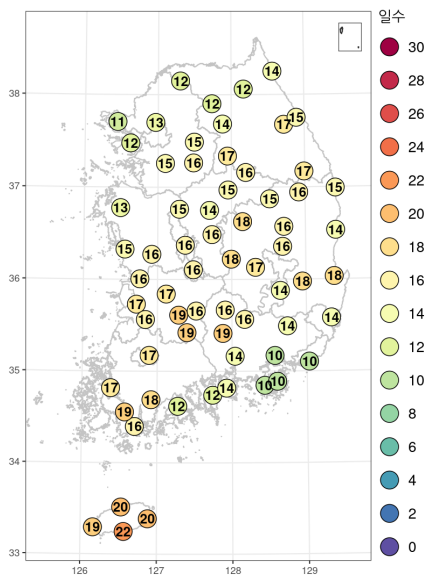
2025년 9월 폭염일수(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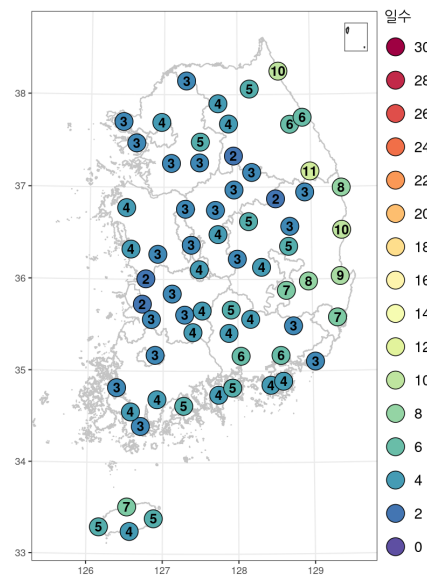
2026년 9월 폭염일수(일)



2025년 9월 강수일수(일)



2026년 9월 강수일수(일)



※ 폭염일수: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의 일수

※ 강수일수: 일강수량이 0.1mm 이상인 날의 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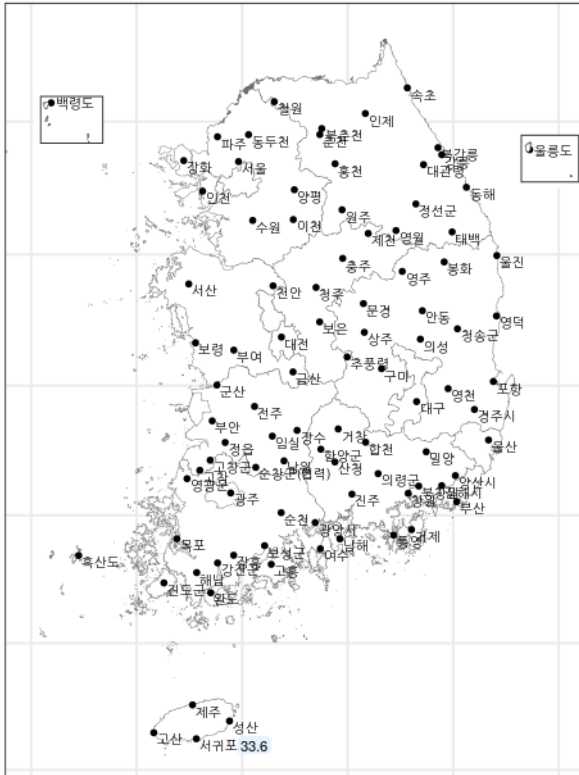
주요 기후요소 비교- 극값

우리나라 극값 현황

- [기온] 9월 초에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며 서귀포는 3일에 33.6℃로 올라 일최고기온 최고 5위 기록을, 일부 남해안(광양, 보성, 순천)은 26일에 비가 내리면서 일최고기온 최저 5위 이내를 기록한 지점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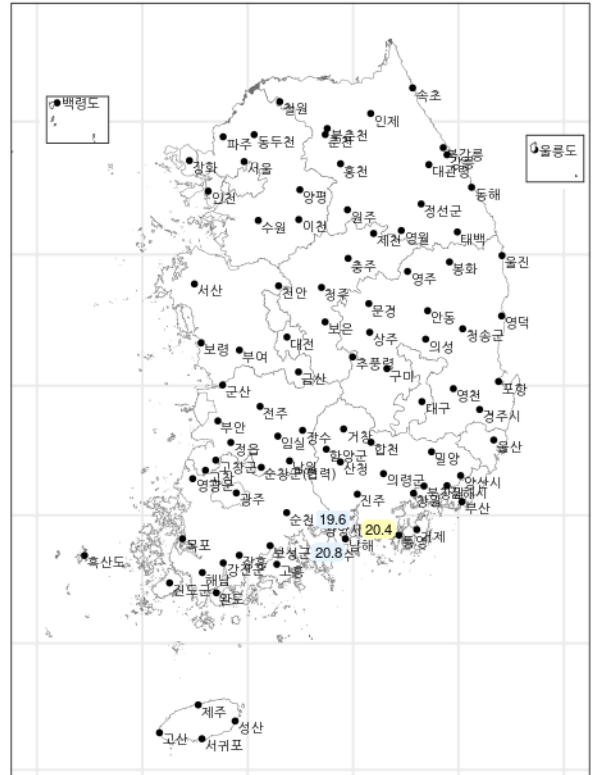
1위 2위 3위 4위 5위

일최고기온 최고 극값(℃)



5위: 서귀포(33.6℃)

일최고기온 최저 극값(℃)



3위: 광양시(20.4℃)

5위: 보성군(20.8℃), 순천(19.6℃)

※ 각 지점별 관측개시 이후부터 10년 이상 연속적으로 관측한 93개 지점의 관측자료를 활용(같은 극값이 2개 이상 존재할 때는 최근 값을 우선순위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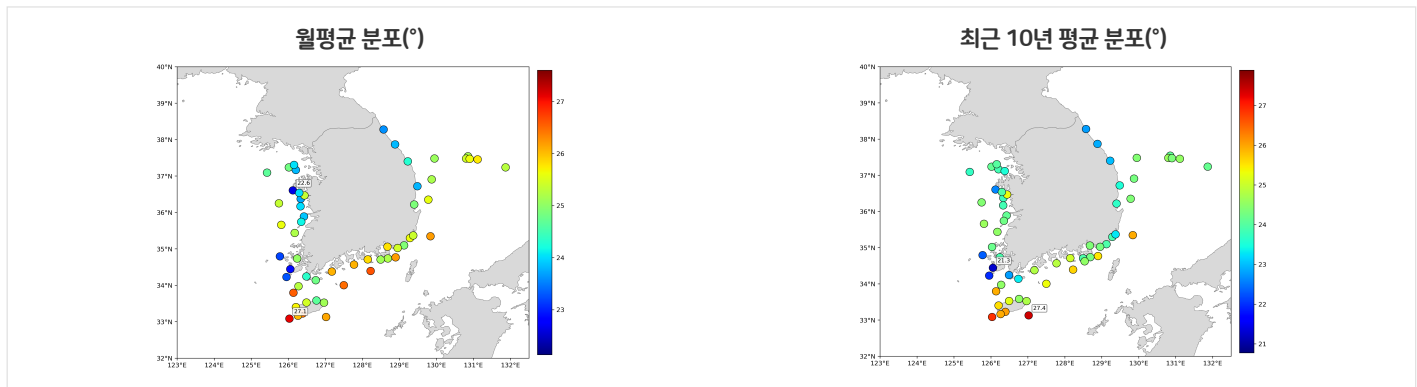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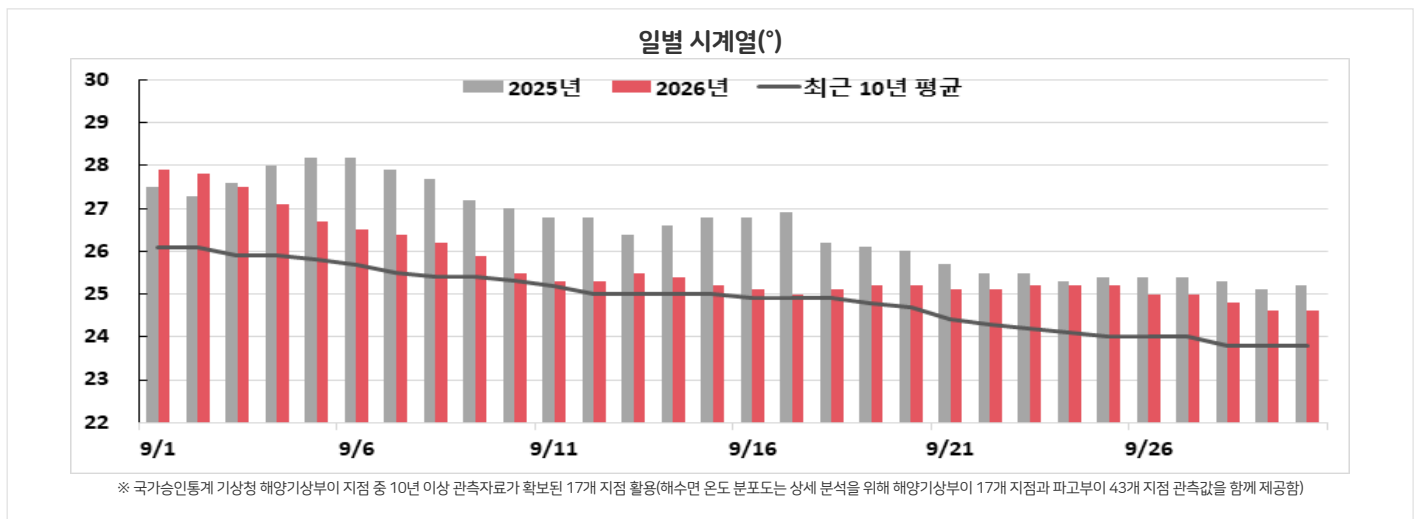


9월 해양 기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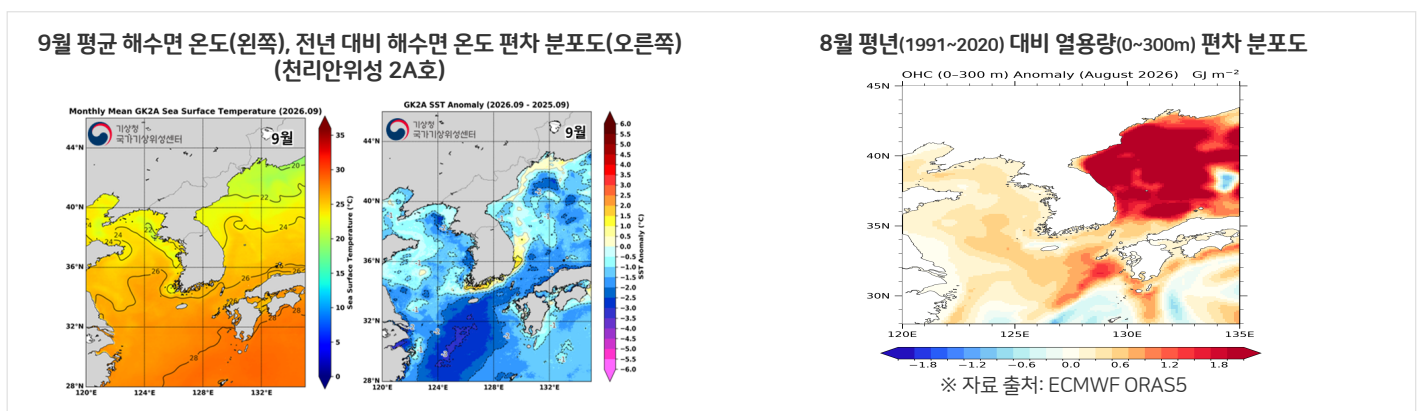
한반도 해수면온도

- **[관측자료]** 9월 우리나라 주변 해역 평균 해수면 온도는 25.6℃(최근 10년 중 4위)로, 최근 10년(2017~2026년) 평균보다 0.7℃ 높았습니다. 8월까지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해양 열용량(0~300m)이 평년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한 가운데, 우리나라 주변 해역으로 유입되는 따뜻한 해류의 영향이 약해지고, 9월부터 상층 찬 기압골 등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해수면 온도는 차차 낮아졌습니다.
※ 해역별 9월 해수면 온도(최근 10년 대비 편차): 서해 24.8℃(+1.0℃), 남해 26.5℃(+0.4℃), 동해 25.6℃(+0.9℃)
- **[재분석자료]** 해역별 평균 해수면 온도(평년 대비 편차): 서해 24.8℃(+2.0℃), 남해 25.1℃(+0.9℃), 동해 23.0℃(+1.3℃)
※ 미국 해양대기청(NOAA) OISSTv2 활용

9월 해수면 온도 관측자료



위성 관측 및 재분석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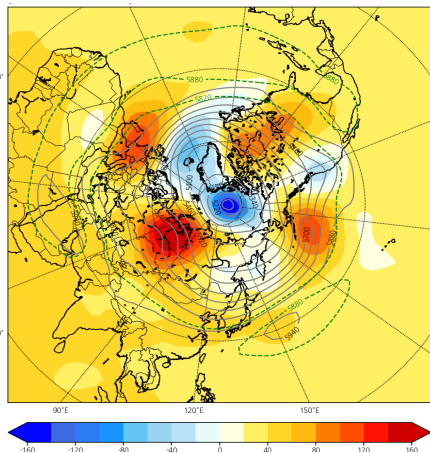
기후학적 원인분석

전 지구 순환장

- **[500hPa 지위고도]** 아프리카, 시베리아, 유라시아, 우리나라, 배링해 부근, 캐나다 동부, 미국 동부 등에서 평년보다 높은 지위고도가 나타났고, 그린란드, 미국 서부 등에서 평년보다 낮은 지위고도가 나타났습니다.
- **[해면기압]** 서~남유럽, 시베리아, 알래스카 부근의 북태평양 등에서 평년보다 높은 해면기압이 나타났고, 그린란드~북대서양, 북유럽, 중앙아시아, 미국 서부 등에서는 평년보다 낮은 해면기압이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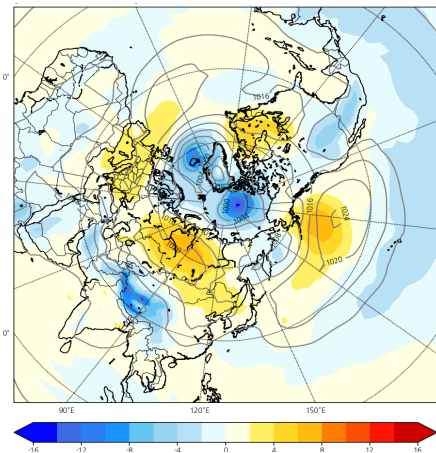
※ 지위고도: 지면에서 특정 기압이 되는 높이로 지위고도가 주변보다 높으면 고기압, 낮으면 저기압을 의미

500hPa 지위고도(m)



- ▶ 채색: (빨강)평년(1991~2020년)보다 높은 지위고도, (파랑)평년보다 낮은 지위고도
▶ 실선: (검정)9월 평균 지위고도, (초록)9월 평년 지위고도

해면기압(hP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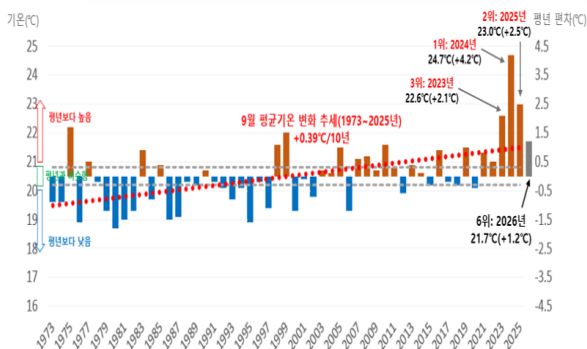


- ▶ 채색: (빨강)평년(1991~2020년)보다 높은 해면기압, (파랑)평년보다 낮은 해면기압
▶ 실선: (검정)9월 평균 해면기압

※ 자료출처: 미국 환경예측센터 NCEP(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 재분석자료

9월 기온 변화 특성 및 지난 3년과의 비교

연도별(1973~2026년) 9월 전국 평균기온 및 편차



2026년 9월 기온 관련 모식도



지난 3년(2023~2025년) 9월 기온 관련 모식도



- **[기온 변화 경향]** 지난 53년(1973~2025년)간 9월 전국 평균기온은 매 10년당 +0.39°C로 상승 추세가 뚜렷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3년(2023~2025년) 9월 평균기온은 2023년 22.6°C, 2024년 24.7°C, 2025년 23.0°C로 평년보다 2.1~4.2°C의 이례적으로 매우 높은 기온을 보이며 역대 1~3위 기록을 경신하였습니다.

- **[지난 3년 역대 고온과의 비교]** 올해 9월 평균기온이 역대 가장 더웠던 지난 3년만큼 높지 않았던 원인은 9월 초~중반에 북쪽의 찬 공기가 유입되고 북태평양고기압이 빠르게 남동쪽으로 물러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3년은 9월에 열대 서태평양~필리핀해 부근의 활발한 대류 활동의 영향으로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 대비 북서쪽으로 확장하여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며 기온이 더욱 상승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반면, 올해는 열대 서태평양의 대류 활동이 평년 대비 강하게 억제되어 열대의 지원을 받지 못했고, 중위도 대기 파동 강화 등의 영향으로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북태평양고기압의 확장이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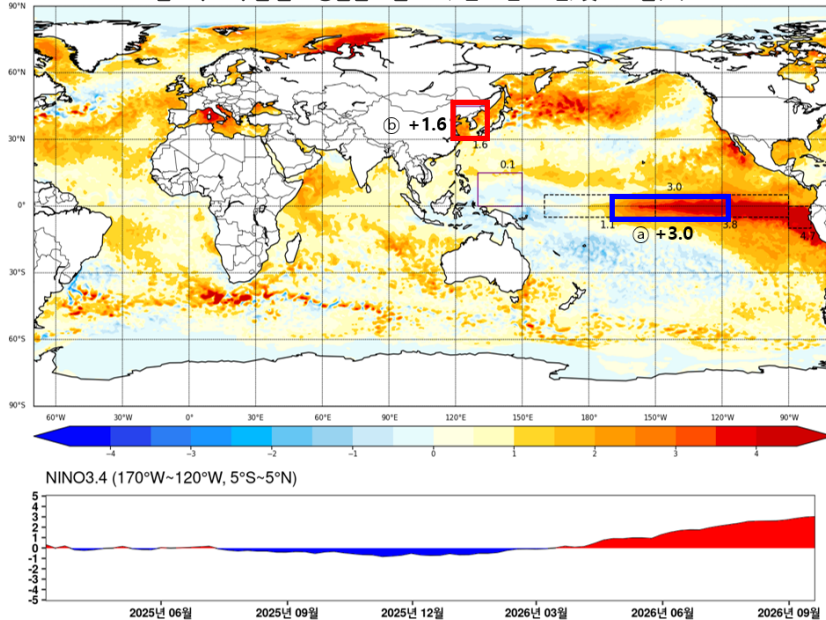
기후 감시 정보

해수면 온도

▶ 우리나라 엘니뇨(라니냐) 정의: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열대 태평양 Nino3.4 지역: 5°S~5°N, 170°W~120°W)의 3개월 이동 평균한 해수면 온도의 평년편차가 +0.5°C 이상(-0.5°C 이하) 5개월 이상 지속될 때 그 첫 달을 엘니뇨(라니냐)의 시작으로 봄

전 지구 해수면 온도 평년편차 분포도(9월 20일~26일) 및 시계열(°C)



㉔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 5°S~5°N, 170°W~120°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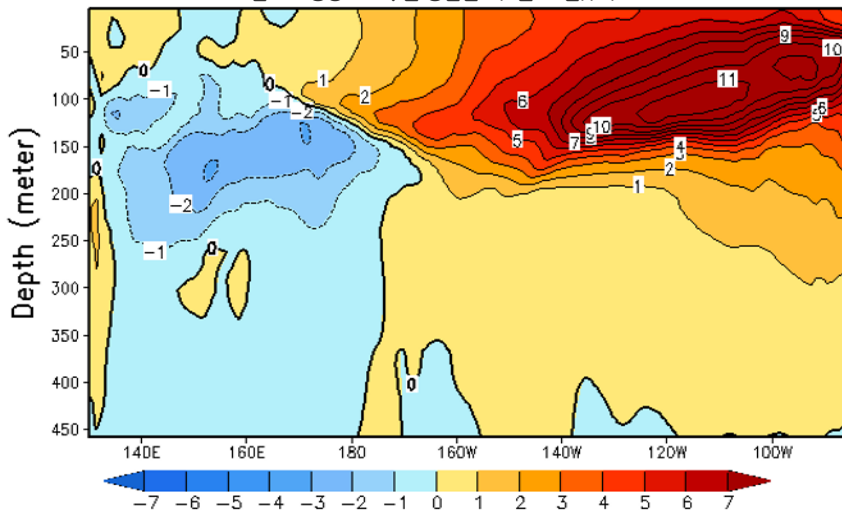
㉕우리나라 주변: 30°N~45°N, 120°E~135°E

※ 자료출처: NOAA OISSTv2(Optimum Interpolation Sea Surface Temperature version2, 최적 내삽(버전2)된 해수면 온도)

• [전 지구 해수면 온도]

: 최근 해수면 온도는 열대 태평양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㉔)에서 평균 29.7°C로 평년보다 3.0°C 높았고, 우리나라 주변(㉕)의 해수면 온도는 평균 25.0°C로 평년보다 1.6°C 높았습니다.

열대 태평양 해저수온 평년편차(9월 25일)(°C)



※ 평년보다 높은 수온(빨강)/평년보다 낮은 수온(파랑)

※ 자료출처: NOAA/Pacific Marine Environmental Laboratory/
Tropical Atmosphere Ocean project(www.pmel.noaa.gov/ta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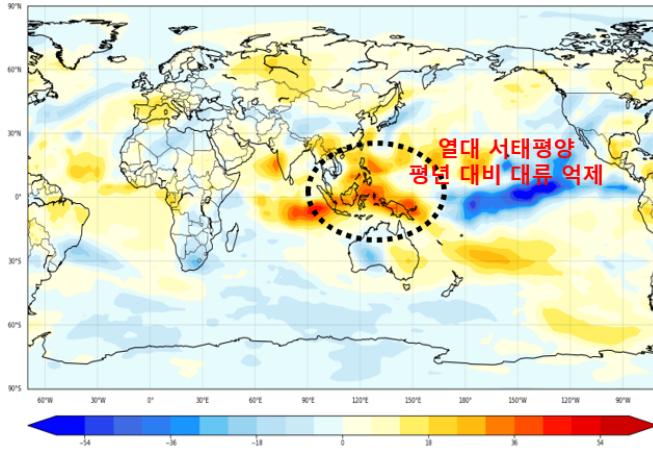
• [열대 태평양 해저수온]

: 9월 25일 기준, 서태평양 (130°E~180°E)에서 -3°C~0.5°C의 음의 해저수온편차가 나타나고 있고, 그 외 대부분 지역에서는 최대 11°C 가량의 강한 양의 해저 수온편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후 감시 정보

계절 감시 및 분석

9월 대류 활동 편차 분포도(W/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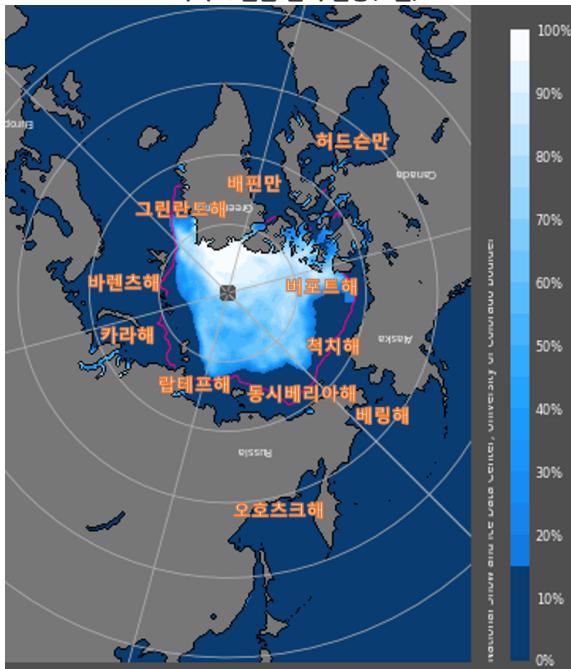


• [대류 활동 편차(OLR) 분포도]

: 열대 서태평양의 대류 활동이 평년 대비 강하게 억제되어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되는 데 지원을 하지 못했고, 북쪽 찬 공기도 유입되면서 북태평양고기압이 빠르게 남동쪽으로 수축하였습니다.

* 주로 여름철에 열대 서태평양 지역에서 대류 활동이 평년 대비 강한 경우, 대류 활발에 의해 상승한 공기는 연직 대기 순환에 의해 우리나라와 일본 부근 중하층에 평년보다 강한 고기압성 순환을 유도하여 북태평양고기압이 발달·확장하는 데 기여함

북극해 얼음 면적 현황(9월)



▶ 실선: (분홍색)북극해 얼음 평년(1981~2010년) 면적
※ 자료출처: 미국 설빙데이터센터(NSIDC)

• [북극해 얼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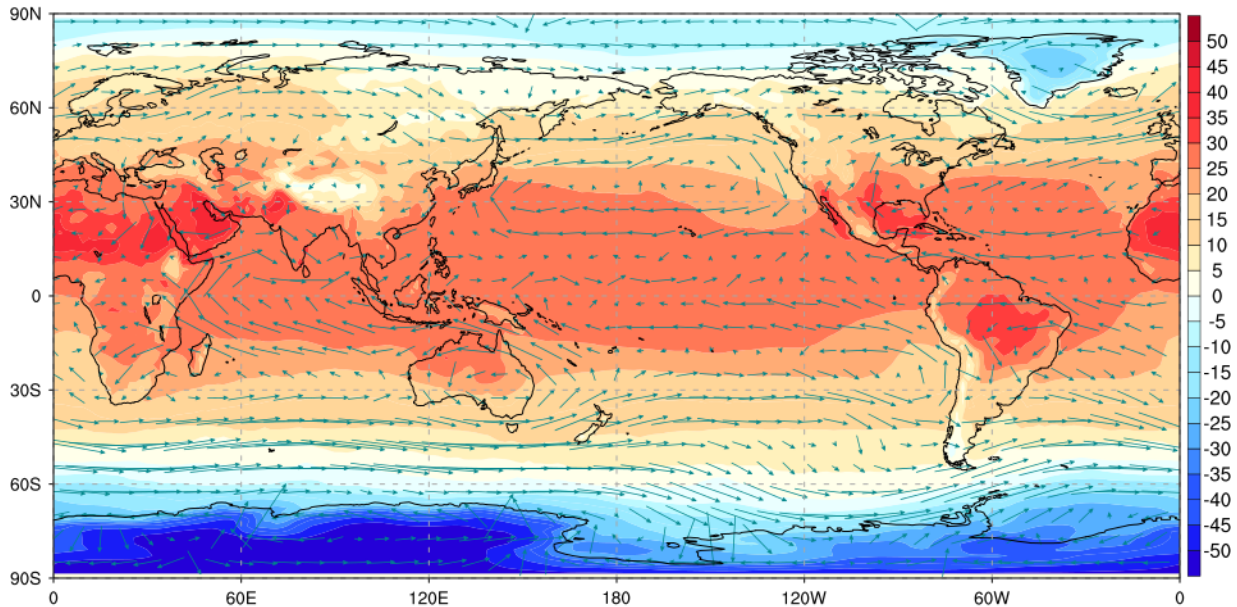
: 북극해 얼음은 전반적으로 평년보다 적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9월 평균 기준, 바렌츠해에서는 역대(1979년 이후) 최저를 기록하였습니다.



전 세계 기온

- 전 세계적으로 9월 평균기온은 16.8°C였으며, 평년(15.2°C) 대비 1.6°C 높았습니다.
- [평년 대비 높은 지역] 유럽, 아프리카, 시베리아, 유라시아, 호주, 알래스카, 미국, 남아메리카 북부, 칠레
- [평년 대비 낮은 지역] 남아메리카 남동부, 그린란드 중부

a) 평균기온(°C)



b) 평균기온 평년편차(°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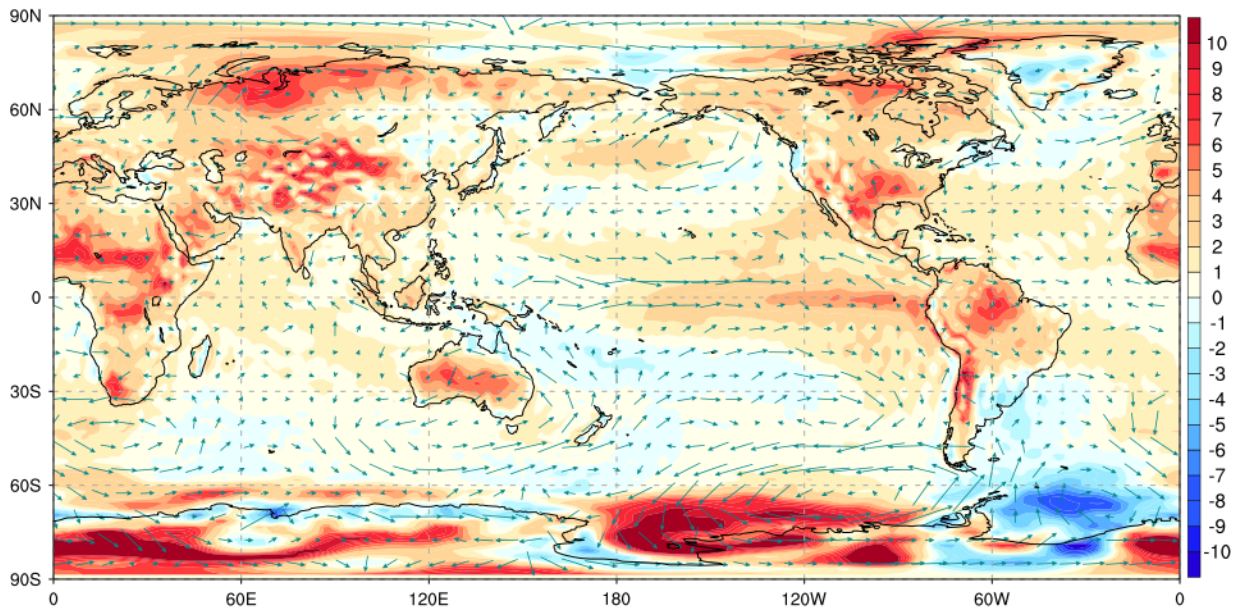


그림 a) ▶ 채색: (빨강) 0°C 이상의 평균기온, (파랑) 0°C 미만의 평균기온, 화살표: (청록색) 850hPa 평균바람

그림 b) ▶ 채색: (빨강) 평년보다 높은 기온, (파랑) 평년보다 낮은 기온, 화살표: (청록색) 850hPa 평균바람 평년편차

그림 b) 평균기온 평년편차(°C): 2026년 9월 평균기온 - 평년(1991~2020년) 9월 평균기온

※ 자료출처: 미국 환경예측센터(NCEP,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 재분석자료(2m 평균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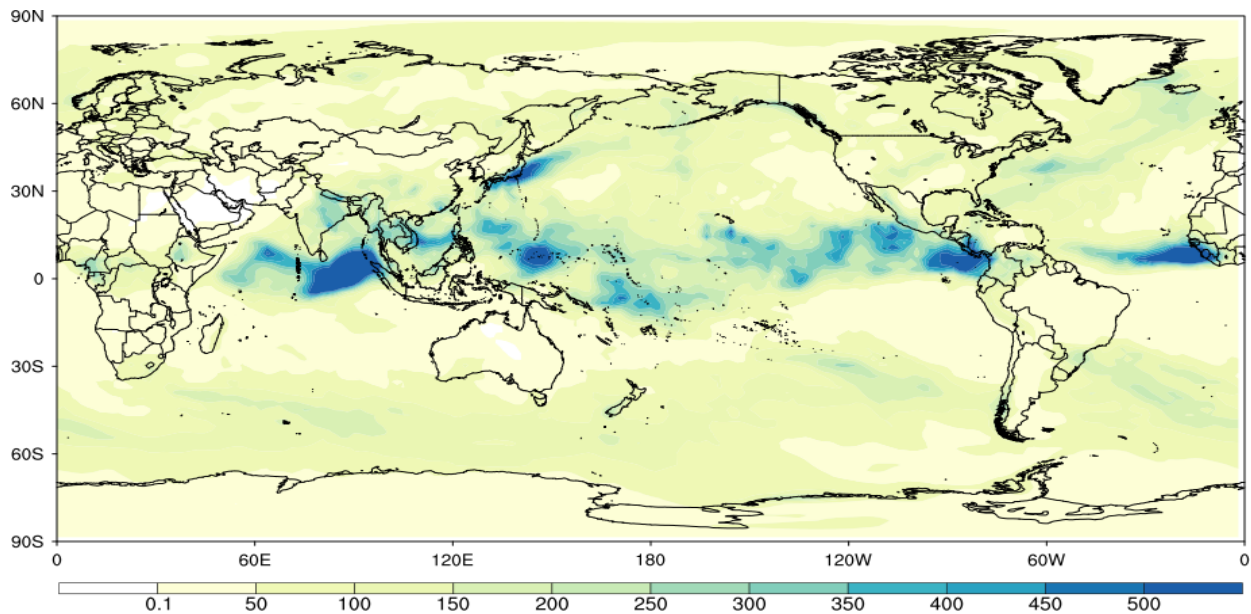
※ 전 세계 평균기온값과 평년편차값은 모델 기반 재분석자료를 평균한 값이므로 실제 관측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강수량

- 전 세계적으로 9월 누적강수량은 98.8mm였으며, 평년(82.8mm)보다 16.0mm 많았습니다.
- [평년 대비 많은 지역] 북유럽, 남아시아, 일본, 캄차카반도 부근, 뉴질랜드, 알래스카, 미국 서부·북동부, 남아메리카 남부
- [평년 대비 적은 지역] 아프리카 중부, 서시베리아,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국 남동부, 남아메리카 북부

a)강수량(mm)



b)강수량 평년편차(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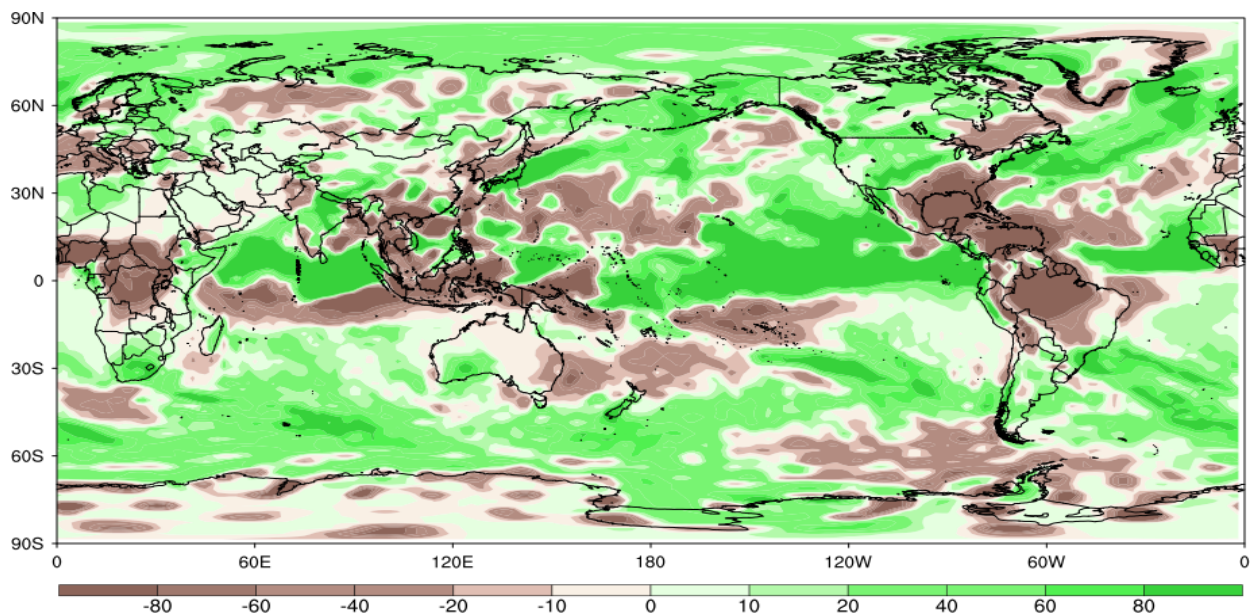


그림 a) ▶ 채색: (초록)월 누적 강수량

그림 b) ▶ 채색: (초록)평년보다 많은 강수량, (갈색)평년보다 적은 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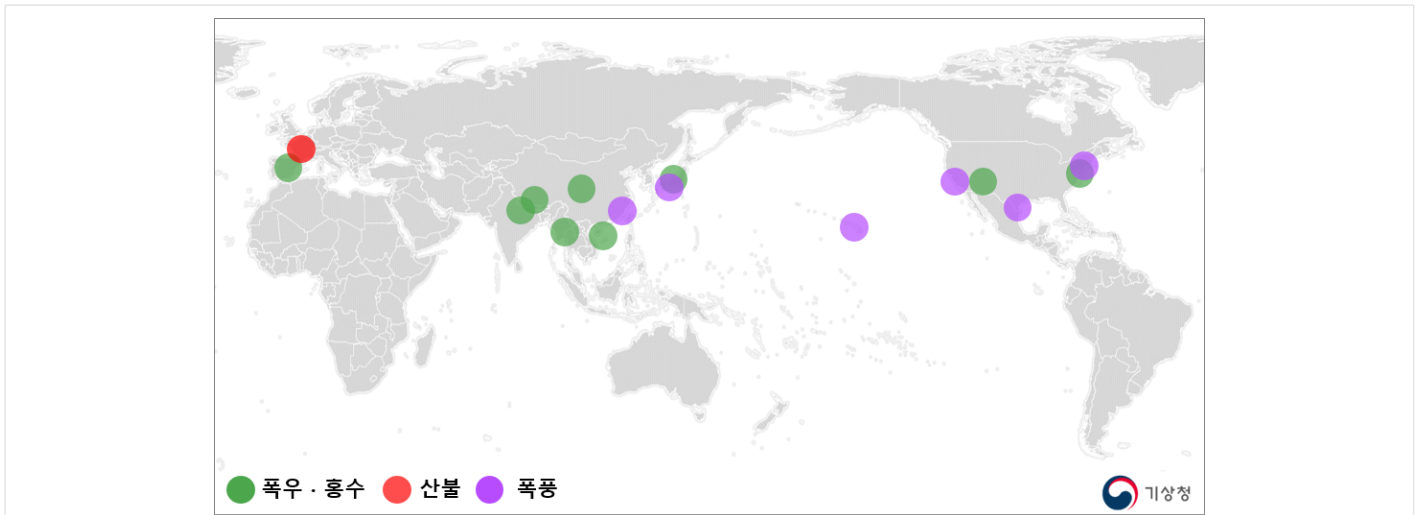
그림 b) 강수량 평년편차(mm): 2026년 9월 누적 강수량 - 평년(1991~2020년) 9월 누적 강수량

※ 자료출처: 미국 환경예측센터(NCEP,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 재분석자료

※ 전 세계 평균 누적 강수량값과 평년편차값은 모델 기반 재분석자료를 평균한 값이므로 실제 관측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9월 전 세계 기상재해



● 폭우·홍수

- (네팔·중국) 히말라야 산악지대에 홍수로 최소 1,398명 사망, 5,515명 실종(8.26.~9.7.)
- (일본) 나고야에 1시간 동안 104.5mm 비가 내려 홍수 발생(9.9.)
- (중국) 하이난섬에 나흘 동안 900mm 이상의 폭우로 홍수 발생(9.11.~14.), 쓰촨성에 폭우와 산사태 발생, 2명 사망, 3명 실종(9.20.)
- (미국) 뉴저지주에 돌발홍수 발생, 3명 사망(9.16.)
- (스페인) 폭우와 홍수로 동부 지중해 지역 운송망 파괴, 1명 사망(9.17.)
- (태국) 폭우로 인해 홍수 발생, 최소 23명 사망(9.24.~30.)
- (인도·네팔) 폭우로 인한 홍수·산사태로 68명 사망, 7명 실종(9.25.~27.)

● 산불

- (프랑스) 7월에 시작된 산불이 두 달 넘게 이어지다 진화, 4만2000ha(420km²) 소실, 22만 4000명 대피(9.28.)

● 폭풍

- (미국) 텍사스에 열대성 폭풍 '에두아르'의 영향으로 폭우와 강풍 발생(9.3.), 남부 캘리포니아에 열대성 폭풍 '마리' 영향으로 폭우 발생(9.8.), 하와이에 허리케인 '로웰' 영향으로 폭우와 강풍 발생, 약 90%에 대규모 정전 발생(9.9.), 북동부에 가을 폭풍으로 1명 사망(9.28.)
- (중국) 남부에 제18호 태풍 '사우델'의 영향으로 폭우·산사태 발생, 5명 사망, 9명 실종(8.28.~9.5.)
- (일본) 제24호 태풍 '크로반'에서 악화된 열대저압부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폭우 발생(9.10.), 제25호 태풍 '두쥐안'의 영향으로 9명 사망, 4명 실종(9.22.)
- (멕시코) 허리케인 '폴로' 영향으로 폭우와 돌발홍수 발생(9.29.)

※ 우리나라와 전세계 기상이슈에 대한 정보를 매주 주간기후이슈를 통하여 기후정보포털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링크를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climate.go.kr/home/bbs/list.php?code=27&bname=scrap>)

기후 이슈

- 최근(2024~2026년) 영향 태풍 적은 원인 분석 -

현황

올해 현재(9월 30일 기준)까지 북태평양에서 총 26개의 태풍이 발생하였지만, 5월에 발생한 태풍 제6호 '장미'는 일부 남해상에 영향을 주었고, 이후 영향 태풍*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에 태풍 '카눈'이 한반도에 상륙하였고, 이후에도 연간 영향 태풍은 2024년 2개, 2025년 0개, 올해(9월까지) 1개로 평년(3.4개)에 비해 적은 경향이 이어졌습니다.

* 우리나라 특보 구역에 태풍특보가 발효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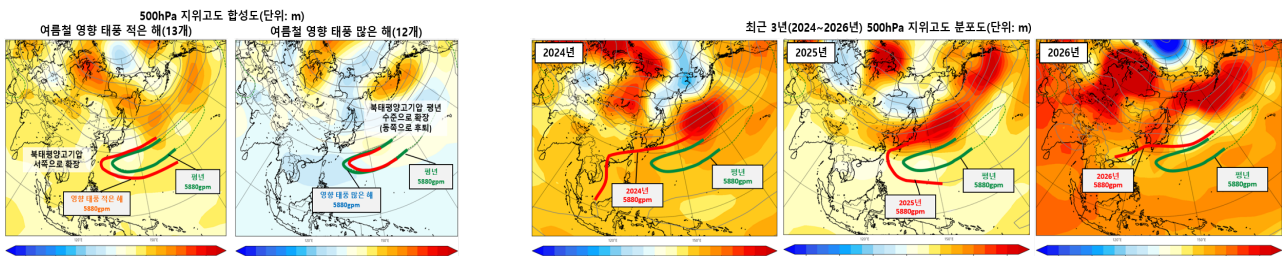
여름철 영향 태풍 적은 원인 분석

(태풍 발생 수와 위치) 태풍의 발생 수와 발생 위치는 열대 부근 해양의 해수면 온도와 대류 활동 등에 따라 해마다 크게 달라 지지만, 여름철 영향 태풍이 많은 해와 적은 해의 전체 태풍 발생 수와 발생 위치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올여름 태풍 발생 수는 17개로 평년(11.0개)보다 6개 많았고, 54년(1973~2026년) 중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하였지만 영향 태풍은 없었고, 최근 3년의 태풍 발생 위치도 일관된 특징은 없었습니다.

최근 3년(2024~2026년) 여름철 태풍 발생과 진로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 여름철 영향 태풍이 적었던 해와 많았던 해의 북태평양고기압 확장 정도를 살펴보면, 여름철 영향 태풍이 적었던 해는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보다 서쪽으로 확장하였고, 영향 태풍이 많았던 해는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 수준으로 동쪽으로 물러나 있어,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 위치가 뚜렷한 차이를 나타냄을 확인하였습니다. 최근 3년은 모두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보다 북서쪽으로 확장한 공통적인 특징을 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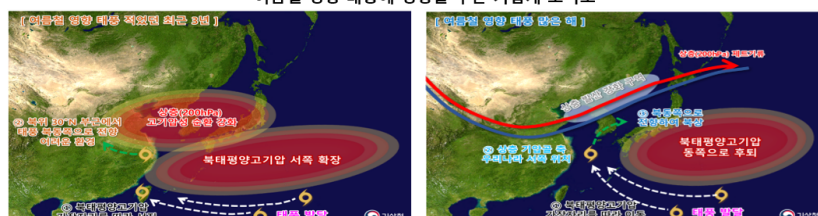
※ 여름철 영향 태풍 적은 해(13개): 태풍 0개(1983, 1988, 1998, 2009, 2016, 2025, 2026), 태풍 1개(1977, 1992, 2001, 2005, 2008, 2023)

※ 여름철 영향 태풍 많은 해(12개): 태풍 4개(1981, 1985, 1993, 1994, 2000, 2002, 2012, 2015, 2019, 2022), 태풍 5개(1976, 2004)

(중위도 상층 기압골 영향) 영향 태풍이 많았던 2004년을 포함한 다수의 영향 태풍 개별 사례에서는 태풍이 북상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부근으로 상층의 기압골이 남하해 태풍의 전향을 돕는 구조가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최근 3년 여름철에는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가 북서쪽으로 확장하여 태풍이 북상해 중위도 상층 기압골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위치까지 도달하기 어려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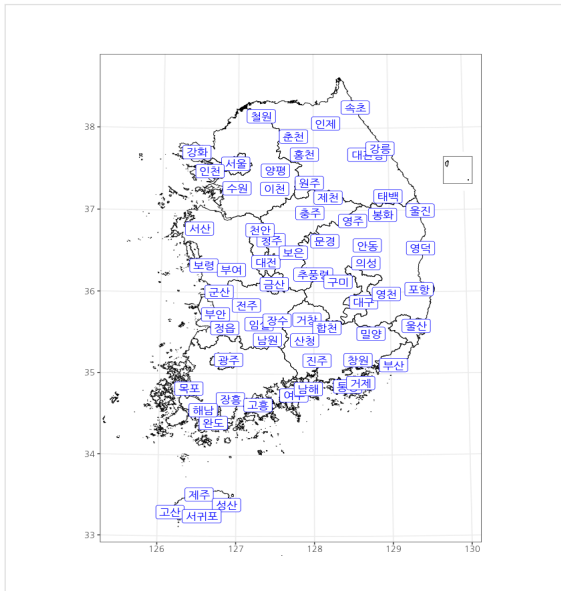
(종합 분석) 영향 태풍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태풍의 이동을 유도하는 주변 대기 흐름, 즉 북태평양고기압의 확장 정도와 우리나라로 북상할 수 있는 중위도 상층 기압골 패턴의 형성여부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보다 북서쪽으로 확장하여 태풍이 우리나라로 접근하기 어렵고 중국이나 대만 방향으로 이동하기 쉬운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상층에 고기압성 순환도 강하게 발달하면서 이러한 구조를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고, 중위도 상층 기압골 영향이 약해 태풍과 상호작용하며 북상하기에 불리한 조건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름철 영향 태풍에 영향을 주는 기압골 모식도





지점 위치정보



• ▶지점 위치정보 - 전국 62개 + 제주 4개 지점 위치

※이상고온(저온) 발생일수: 이상고온(저온)은 평년(1991~2020년)에 비해 기온이 현저히 높은(낮은) 극한현상으로 일최저·최고기온이 90퍼센타일을 초과(10퍼센타일 미만)에 해당하는 일수를 나타냄

※강수일수: 일강수량이 0.1mm 이상인 날의 일수

※일교차 10℃ 이상 일수: 전국 66개 지점의 일최고기온과 일최저기온의 차이가 10℃ 이상인 날의 일수

9월 지점별 이상고온 일수 및 현상일수(일)

지점명	이상고온 일수		현상일수		지점명	이상고온 일수		현상일수	
	최고기온	최저기온	폭염일수	강수일수		최고기온	최저기온	폭염일수	강수일수
속초	3	3	0	10	강화	5	4	0	3
철원	11	1	0	3	양평	7	2	0	5
대관령	5	6	0	6	이천	10	1	0	3
춘천	9	1	0	4	인제	7	1	0	5
강릉	4	2	0	6	홍천	6	1	0	4
서울	10	4	0	4	태백	6	4	0	11
인천	5	7	0	3	제천	2	0	0	3
원주	8	2	0	2	보은	2	2	0	4
수원	6	1	0	3	천안	2	2	0	3
충주	6	0	0	3	보령	16	5	0	4
서산	6	6	0	4	부여	3	3	0	3
울진	6	6	0	8	금산	4	4	0	4
청주	7	8	0	3	부안	3	6	0	2
대전	7	1	0	3	임실	4	7	0	3
추풍령	1	1	0	3	정읍	4	7	0	3
안동	3	3	0	3	남원	4	7	0	4
포항	4	12	0	9	장수	6	7	0	4
군산	3	0	0	2	장흥	11	7	0	4
대구	3	3	0	7	해남	12	7	0	4
전주	7	2	0	3	고흥	17	6	0	5
울산	3	2	0	7	봉화	2	3	0	3
창원	5	4	0	6	영주	1	1	0	2
광주	9	6	2	3	문경	3	3	0	5
부산	10	7	0	3	영덕	3	5	0	10
통영	9	6	0	4	의성	3	4	0	5
목포	3	8	0	3	구미	9	6	0	4
여수	12	8	0	4	영천	3	5	0	8
완도	18	7	2	3	거창	7	7	0	5
제주	10	11	1	7	합천	1	6	0	4
고산	6	6	0	5	밀양	7	9	2	3
성산	5	7	0	5	산청	2	5	0	4
서귀포	13	5	1	4	거제	2	3	0	4
진주	0	1	0	6	남해	1	5	0	5